

국방    해군·해병대

## [해군교육사] 女부사관 65명 2003년 이래 최다

입력 2017. 12. 03 15:33

제257기 해군 부사관 후보생 363명이 해양 수호를 향해 힘찬 항해를 시작했다.

해군교육사령부는 1일 교육사령부 연병장에서 이범림(중장) 해군교육사령관 주관으로 제257기 해군부사관 후보생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임관한 신임 부사관 363명(여 65)은 8주 동안 체계적인 고강도 훈련을 통해 해군 부사관으로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역량을 검증받았다.

특히 이번 임관식에서는 2003년 제201기 해군 부사관 후보생 임관 이래로 가장 많은 해군 여군 부사관(65명)이 배출됐다.

또한 두 쌍의 해군 남매 부사관과 육군·해군·공군 3부자(父子) 부사관이 탄생해 눈길을 끌었다.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임관한 서종현 하사는 참모총장 우등상의 영예를 안았고, 교육사령관 우등상, 1군사교육단장 우등상, 해군 동지회 우등상에는 각각 강대룡 하사, 임병철 하사, 박선영 하사가 선정됐다.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은 축전을 통해 “부사관이 건강해야 부대가 강해진다”며 “전투중심의 부대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일에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57기 해군 부사관 후보생들은 4박5일간의 휴가 뒤 해군 제2군사교육단 예하 학교기관에서 직별 교육을 받고 함정을 비롯한 해·육상 각 부대에 배치된다. 송하란 인턴기자

<저작권자 © 국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